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험로... 노조·자본 리스크 관건

메리츠, MG손보 매각 우협 선정
MG손보 노조, 고용승계 요구·반발
우협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메리츠 “실사 거쳐 부실뎀 중단”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의 구원
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인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
사는 지난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
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앞서 네 차례의 매각 입찰에 실패한 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
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매
각 절차가 진행됐다. MG손해보험은 예

금보험공사를 통해 네 차례 공개 매각
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8월 제3차 공개매
각 재공고에 참여했다. 여러 차례 공개
매각에 실패하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MG손해보
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
를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자
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 선정에도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는 순탄치 않을 전망
이다. 매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과 높
은 비용 지출로 인해 인수 리스크가 발
생해서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인수 참여와 함께

MG손해보험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
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전 직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방식을 통한 인수
가 가능해져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P&A방식은 인수합병(M&A) 방식
과 달리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인수 대
상 기업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
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지난 11일 ‘메
리츠화재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철회 촉
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
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가 고용 해결 방법에 대해 어떠한 계획
도 없이 고용 의무가 없는 매각을 진행

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전 직원 및 임
직원들이 모여 예보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G손해보험의 부실한 자본 상
태도 리스크로 작용한다. MG손해보험
의 올해 2분기말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
(K-ICS·키스) 비율은 44.42%에 불과
하다.

이에 따라 예상 매각가는 2000억~
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금융당국의 권
고치인 150%를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에는 최대 1조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억원 규모
의 공적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을 감안
하면 인수금액은 실질적으로 5000억~
6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향후 실사 과정을 거쳐

인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나 MG손보
보험의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면
인수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지난달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주당 이익
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
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최종
인수하면 업계 2위인 DB손보와의 격차
를 좁힐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새 국
제회계기준(IFRS17)상 보험사의 주요
경영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4687억원이다. M
G손해보험(6774억원)과 합치면 11조
1461억원으로 DB손보(12조1524억원)
와의 격차를 좁히게 된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수협銀 지주설립 첫 단추... 신학기號 라인업 완성

수석부행장에 도문욱 등 인사 단행
기업 연체율 올라 건전성 확보 과제

신학기수협은행장(사진)이 손발을 맞
출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2년간 금융지
주설립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만큼 시간
이 촉박하다. 자회사 인수합병(M&A)을
예고한 만큼 건전성 확보도 요구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협은
행은 부행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신
학기 행장과 호흡을 맞출 수석부행장에
도문욱 부행장을 낙점했다. 신 행장 또
한 강신숙 전 수협은행장 체제에서 수
석부행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도 부행장은 1967년생으로 세종대에
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4년 수협중
앙회에 입회해 ▲수산금융기획팀장 ▲
해양선박금융팀장 ▲글로벌외환사업부
장 ▲종합기획부장 ▲투자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 행장과는 기획부장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경남 출신이라
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 또한 경남 진해 출신이다.

도 부행장을 낙점한 배경에는 지주설
립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 부행장이 과거 투자금융
본부장직을 수행한 만큼 인수금융에 관



한 전문가로 통한다.

경남은 대한민국 ‘수
산 1번지’다. 수협이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
는 만큼 현안 파악과
외부 네트워크 작업
또한 수월할 것이란 의견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도 부행장은 수
협은행에서 종합기획부장 등을 지내면
서 재무와 기획에 능통하다”며 “수산해
양금융부를 총괄 지휘하면서 능력을 입
증한 만큼 역량을 발휘할 시기가 온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장문호 신임 부행장은 제주출신이다.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여
신정책부장과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등을 수행했다. 오미석 신임 부행장은
전남출신이다. 1970년생으로 1995년 수
협중앙회 입회해 순천지점장, 감사팀
장, 수산해양금융부장 등을 지냈다.

김혜근 신임 부행장은 전북출신이다.
1991년 수협중앙회 입회해 디지털
운영팀장, IT지원부장, IT개발부장 등
을 수행했다. 업계에서는 금융IT분야
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DT)
에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무가 막

중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손발을 맞출 부행장 인사가
결정된 가운데 당장의 과제는 건전성
확보다. 지난 9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연
체율은 0.54%다. 전년 동기(0.43%)대
비 0.11%포인트(p) 상승했다. 이 중 가
계대출 연체율은 0.49%로 연간 0.22%
p 상승했다. 연간 기업대출 연체율이
0.06%p 오른 점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실적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지표다.
올 3분기 수협은행의 누적순이익은
2120억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2.61%
감소했다.

신 행장은 취임식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
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지주설립 요건
을 맞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
이된다. 금융권에서는 강 전 행장이 역
대급 수익을 거두며 실적 측면에서 ‘합
격점’을 받았던 만큼 건전성과 영업을
동시에 확대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가 공
적자금 상환 후 지주설립을 우선과제로
두고 있고 역대급 실적에도 행장 교체 수
순을 밟았다”며 “능력 위주의 인사로 평
가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아홉번째), 최호정 서
울시의회 의장(여덟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전지원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첫 삽 오세훈 시장 “상전벽해 수준 대개조”

“착공 다행... 3300억 기여 예정
39층 MICE사업 선도 시설 건립”

“상전벽해 수준의 대개조를 맞이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
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북의 코엑스라
는 수식어를 걸고 2008년 추진한 ‘서울
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오 시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서울역
일대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2008년 서
울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
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허브로 성장
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과 손
잡고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추진한 사
업이다.

오 시장은 “당시 바로 착공하지 못하
고 16년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
타깝게 생각한다”며 “우여곡절 끝에 다
시 시동을 걸고 오늘 착공식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고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약 3300억원의 공공기여가 예
정돼 있어 서울역 일대와 지역 노후시
설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역
근처 뿐만 아니라 중구에도 새로운 변
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며, 강북
의 코엑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저이
용 철도부지(면적 약 3만㎡)에 강북권
최초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시·
국제회장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
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 준공
을 목표로 한다.

최고 39층 규모로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MICE 사업을 선
도할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2021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를 통해 개발 및 공공기여 계획이 마련
됐다. 3384억원이 인프라 확충, 균형발
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
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이 사업은 한화임팩트, 한화, 한화커
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
립한 개발목적 법인인 서울역북부역세
권개발에서 시행한다. 한화건설 부문이
건설공사를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
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서울역은 KTX와 공항철도의 출발
역이자 GTX 등 광역철도가 신설되는
파견 중심지인데 반해 미관과 그 기능
이 열악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철
도 지하화 추진 및 주변 지역 재개발 정
비사업 등으로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정돼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집값, 38주째 올라

아파트 매매값 0.02% 상승
매매수급지수는 8주째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8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8주째 하락
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
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
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오르면서 38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
(0.06%→0.02%)가 공덕·대흥동 역세
권 단지, 성동구(0.05%→0.02%)는 성
수·옥수동, 도봉구(0.02%→0.02%)는

도봉·방학동, 용산구(0.05%→0.04%)
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광진구
(0.06%→0.07%)는 광장·자양동 정주
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04%→0.07%)
는 서초·반포동 주요단지, 양천구
(0.05%→0.03%)가 목·신정동, 강남구
(0.12%→0.07%)는 압구정·개포동 재
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0.05%→0.
04%)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세
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는 11월 전용면적 59㎡

가 17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매매가격(16억1800만원) 대비 1억4700
만원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 이달 전
용면적 101㎡가 25억8000만원에 거래
되면서, 1개월 만에 5500만원 올랐다.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으로 전주(99.2)보
다 0.6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지수가 하락
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
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
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지원 기자